

전기계 소식 / 국내

제2차 자원정책 자문위원회 개최

2010년까지 총 122기 5700만kW의 발전설비 확충

통상산업부는 지난 4월 3일 한국전력 공사 회의실에서 금년도 제2차 자원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朴在潤 통상산업부장관과 학계, 업계, 연구소 및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 25명, 통상산업부 자원정책분야 간부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96년 1/4분기 자원정책 추진실적과 2/4분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전력부문에 있어서는 한전이 KEDO 이사회에서 북한 경수로건설사업의 주계약자로 지정된 의의와 향후 전망에 대하여도 논의하는 한편, 장기전력수급계획 확정에 따른 발전설비의 확충과 민자발전사업자의 활성화방안 등을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1. '96년 1/4분기 추진실적·평가 및 2/4분기 추진계획-전력부문

○ 1/4분기 추진실적 및 평가

- 2010년까지 46조원을 투입하여 총 122기 5700만kW의 발전소를 확충하여 발전설비규모를 7955만kW로 하는 장기전력수급 계획을 확정·공고하였으며, 동계획에 635만kW의 민자발전 물량을 확정함으로써 전력분야 경쟁체제 도입기반을 마련.
- 1965년부터 총 2669억원을 투자하

여 추진한 농어촌전화사업은 대상 252만 4천호 중 252만 2천호를 완료하여 전기보급률 99.9% 달성

- 대북 경수로사업은 KEDO가 신포지역에 대한 1단계 부지조사를 2월중에 완료하고 2단계 추가조사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3월 19일 개최된 KEDO집행이사회에서 한전을 주계약자로 선정

- 원전관련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은 원자력연구소에서 한전으로 이관키로 하였으며, 원전연료 설계 및 제조사업은 원전연료(주)로 일원화하는데 합의

○ 2/4분기 추진계획

- 여름철 전력수급안정 종합대책은 4월 중 발표되는 여름철기상 정보 등 기본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고 5월중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
- 현재 추진중인 민자발전사업의 세부 평가계획 확정 및 평가단 구성을 완료하고, 사업신청서를 접수(5월 30일)하여 평가에 착수하는 등 7월말 사업자선정을 위한 제반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
- 전기요금의 합리적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여름철 전력수요절감을 위한 부하관리요금제도 확대방

안을 마련

- 방사성폐기물 관리업무의 이관, 규제완화, 안전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에 따른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정비하며, '95년 12월에 제정된 전력기술관리법의 하위법령 제정

2. 장기전력수급 계획

가. 계획수립의 배경

- 장기전력수급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매 2년마다 10개년 이상의 기간으로 수립하고 그 주요 내용을 공고토록 되어 있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7개 장기전력수급계획 실무위원회의 과제별 검토와 공청회 및 장기전력수급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6년간('95~2010)의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수립

나. 장기전력 최대수요 전망

- '93년 하반기 이후의 경제 여건 변동 및 전력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장기전력 수요예측시 사용하는 주요 입력자료의 변동 요인을 조정하여 최대전력수요를 전망

-수요관리전 최대전력수요는 연평균 6.3% 증가되어 2010년에 7085만

전기계 소식 / 국내

kW에 달할 전망

-요금구조 개선, 대체냉방기기 및 고효율기기 보급촉진 등 수요관리 계획을 적극 반영한 결과, 수요관리후 최대전력 수요는 연평균 5.8% 증가되어 2010년에 6564만kW에 달할 전망

〈장기전력 최대수요〉

(단위 : 천 kW)

구 분	수요관리전 최대수요	수요관리 효과	수요관리후 최대수요
1995	N.A	N.A	29,878
1996	33,255	652	32,603
2000	45,050	1,491	43,559
2005	58,588	2,992	55,666
2010	70,852	5,210	65,642

주) '95년의 수요관리효과가 아직 정량화되지 않았음

다. 장기전력 설비계획

- 에너지원별 발전설비 구성은 공급신뢰도, 경제성, 입지, 환경, 재원조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설비 구성을 추구
- 수요예측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고품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계획기간 동안 설비예비율을 18~20% 수준으로 유지
- 최근 국제 환경규제강화 추세에 따라 석유 및 석탄화력의 설비 구성을 줄이고, LNG복합화력의 설비를 대폭 확대
- 원자력발전은 부지확보여건 등 현실적인 제약여건 때문에 '93년

계획보다 낮게(2006년 설비구성비:37.7%→28.6%) 반영

- 설비계획 결과, '95년부터 2010년까지 총 122기 5700만kW의 발전소를 건설하고 36기 620만kW의 발전소를 폐지하여, 2010년의 총발전설비용량은 7955만kW로서 '95년 3218만kW의 2.5배 규모

-계획기간 동안 원자력 19기 193만

kW, 석탄화력 29기 1550만kW, 석유화력 4기 115만kW, LNG복합화력 41기 1755만kW, 수력 및 기타 29기 350만kW를 건설

- 전력사업의 경쟁도입과 투자재원, 입지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는 민자발전사업의 대상물량을 15기 635만kW로 대폭 확대(석탄화력 50

kW급 2기, LNG복합화력 45만kW급 11기, 양수 25만kW급 2기)

- 전력사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중인 130만kW급 차세대 원

전, 30만kW급 신석탄발전방식 및 5천kW급의 대체에너지 발전방식을 건설키로 반영

〈에너지원별 발전 설비 구성〉

(단위 : 만 kW, %)

구 분	1995	2000	2005	2010
원자력	862 (26.8)	1,372 (26.0)	1,872 (27.5)	2,633 (33.1)
석 탄	782 (24.3)	1,583 (30.0)	2,203 (32.4)	2,170 (27.3)
LNG	674 (20.9)	1,420 (26.9)	1,621 (23.9)	2,201 (27.7)
석 유	592 (18.4)	514 (9.8)	550 (8.1)	353 (4.4)
수 력	309 (9.6)	388 (7.3)	548 (8.1)	598 (7.5)
합 계	3,218 (100)	5,276 (100)	6,793 (100)	7,955 (100)

라. 장기전력 수급전망

- 장기전력 수급전망 및 설비계획 수립 결과, '98년부터 2010년까지 18~20% 수준의 설비예비율을 유지하여 전력수급은 안정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97년까지는 발전소 공급능력의 추가 확보가 어려우므로 수요관리 강화로 대응

〈장기 전력수급 전망〉

구 분	판매전력량 (억kWh)	최대전력 (만kW)	설비용량 (만kW)	설비예비율 (%)
1996	1,794	3,260	3,572(3,570)	9.6
1997	1,956	3,548	3,995(4,145)	12.6
1998	2,109	3,839	4,555(4,657)	18.6
2000	2,393	4,356	5,196(5,276)	19.3
2005	3,059	5,567	6,618(6,793)	18.9
2010	3,656	6,564	7,820(7,955)	19.1

주) ()는 연말 기준

전기계 소식 / 국내

- 장기전력수급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
 - 하계휴가조정 및 자율절전 등에 의한 요금제도 개선
 - 빙축열 및 가스 냉방 기기 보급 확대
 - 기기 효율향상, 고효율기기 우선구매, 가전기기 최저효율제 등 시행
- 투자재원 적기조달
 - 민자발전확대, 한전 경영효율개선 등을 통한 신규투자소요 최대억제
 - 유상증자실시 등 한전의 자금조달능력을 강화하고, 전기요금 적기에 조정
- 상한수요시는 설비예비율 12.0% 수준으로, 하한수요시는

- 설비예비율을 25.0% 수준으로 발전소 건설계획을 조정
- 전력설비의 환경친화적 건설 및 운영,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 홍보활동 강화 등을 통한 전력설비 입지의 적기 확보
- 전력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력사업의 추진체제를 효율적으로 조

- 정하고, 전력분야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
- 향후 정책과제
- '97년도 계획에 반영할 통합전력수급 계획(IRP)도입문제, 수요관리제도 개선방안 등에 관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전력분야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전력기술개발계획(가칭)을 수립할 계획

〈투자재원 소요 전망〉

(단위 : 억원)

구분	1995~2000	2001~2005	2006~2010	계
원자력	95,860	103,478	41,447	240,785
수화력 (민자설비)	129,852 (4,530)	67,677 (23,017)	26,954 (10,200)	224,483 (37,747)
계	225,712	171,155	68,401	465,268

주) '95 불변가격 기준, 민전설비 포함(수자원, 소수력, 한화는 제외)

韓電, 인도 전력사업에 참여

신규화력 건설, 노후발전소 개선, 송전망 공사 등 협약

한국전력공사가 인도 전력사업에 진출한다.
한국전력(사장:李宗勳)은 필리핀과 중국에 이어 지난 3월 29일 인도 뉴델리에서 중앙정부 전력부와 전력사업 전반에 걸친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인도전력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발표하였다.

한전의 沈昌生대외전력사업단장과 인도전력부의 아브라함 차관간에 서명된 동 양해각서는 지난 2월 김영삼 대통령의 해외순방시 인도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이를 계기로 한전은 인도정부의 지원아래 신규 대용량화력발전소 건설, 운영사업 및 기존 노후발전소의 설비개선, 현대

화사업에 인도 국연전력회사들과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에 인도측이 한전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 사업내용은 남부 Tamil Nadu주 Madras 남쪽지역의 Kovalam 신규발전소(500MW×2기)건설사업과 동부 West Bengal주의 Maithon 신규발전소 (210MW×4기) 및 Meijia

신규발전소(210MW×2기)건설사업이
며, 국영 다모다르계곡 개발공사(DVC)
산하의 Chandrapur 발전소 및
Bokaroa A발전소에서 운전중인 10기
의 노후발전소 설비개선 및 현대화사업
등이다.

또한 한전은 인도 중앙정부 산하의
화력발전공사(NTPC) 및 송전망 공사
(PGC), 다모다르계곡 개발공사(DVC)
등과도 전력분야의 상호 인적교류 및
정보교환을 위한 기술협력협정을 체결
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특히, 발전기
자재 제작업체 및 발전소 건설업체 등
국내관련기업의 대 인도진출에 크게 기
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도의 발전시장
규모는 2001년까지 약 8백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자동화지원센터 개관

중소기업 자동화지원 본격 케도에 올라

朴在潤 통상산업부장관은 지난 4월
3일 李愚榮 중소기업청장, 蔡載億 중
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중소기업대
표 등 230여명과 함께 경기도 시화
공단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자동화지
원센터 개관행사에 참석하여 현판식
과 기념식수를 하고 관계자들을 격려
하였다.

이 자동화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생산자동화를 통한 제품의 품질수준
향상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93년 12월에 착공하여 이
번에 대지 9,000평, 건평 3,837평
규모로 개관하게 되었다.

앞으로 자동화지원센터는 우리 중
소기업들이 기술선진국 수준으로 도
약할 수 있도록 자동화 교육훈련에서
부터 기술지도, 시스템개발지원, 정
보제공, 자금지원에 이르기까지 중소

기업의 자동화와 관련된 각종 지원사
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시스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화 설비를 설치한 중소기업의 각
종 운영프로그램을 대행개발해 주고
중소기업이 새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S/W)에 대해서는 시원전 및 S/W
검증도 실시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
자동화설비의 효용성 극대화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자동화추
진을 위한 실무 응용능력 배양과 현장
재현을 통한 실습위주의 교육훈련사업
도 병행하여 자동화 전문기술인력 양
성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으로 있는데
올해는 1,500명의 자동화 전문기술인
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생산
현장 중심의 자동화 기술지도사업에도
주력하여 올해는 340개 업체를 지도

할 계획으로 있다.

- 주요사업 추진방향
 -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의 적극 추진 ('96 : 2조원)
 - 자동화를 위한 기술과 시설자금 지원
 - 자동화 전문기술인력의 양성('96 : 1,500명)
 - 고도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실 습위주의 교육
 - 생산현장중심의 자동화 기술지도 ('96 : 340업체)
 - 문제점 해결 및 생산성 향상 지 도
 -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스템개 발 지원
 - 체계적인 자동화 시스템개발· 보급

전기계 소식 / 국외

**新工法・新技術 등
적극 채용**
**日, 電力各社,
効率화에 박차**

「장기전력 안정공급」과 「저렴한 전기요금의 유지」라는 두 개의 命題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본의 각 전력회사는 열심히 경영효율화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개정과 신요금제도의 실시 등으로 사업환경이 일변하였기 때문이다.

경쟁원리의 도입과 요금인하로 수지상항도 걱심해지는 가운데의 실천인 만큼, 효율화를 실현하는데는 다양한 수단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각사는 각기 신공법, 신기술의 채용과 정기보수 인터벌의 장기화, 공사계획의 연기 등을 검토 하면서 코스트의 압축에 노력하고 있다.

沖繩電力을 포함한 電力 10개사의 1996년도 설비투자액은 4조 8180억엔으로 1995년도 실적예상액에 비하여 5.6% 증가할 전망이다. 東京, 東北, 四國, 北海道 등의 각 회사에서 화력전원이나 기간송전공사 계획이 본격화하기 때문에 투자액이 피크(4조 9340억엔)였던 1993년도 이래 3년만에 플러스가 된 셈이다.

그러나 작년 10월의 요금신청시에 각 회사가 제시한 변경계획 가운데 1996년도 설비투자액은 5조 534억엔으로 계획

되어 있었으며 반년간의 재검토로 10개사 합계 2354억엔으로 약 5%의 투자액이 삭감되었다. 또한 작년도 당초(1995년 4월)시점의 계획과 비교하면 압축된 금액은 더욱 확대되어, 당초예상 5조 2303억엔으로 되어 있던 1996년도 설비투자액은 1년만에 4123억엔 삭감된 것이 된다.

투자삭감내용은 공사의 연기로 인한 것이 비교적 큰 비율을 차지하지만, 신공법, 신기술의 적극적인 채용이라든가 경쟁견적의 확대, 기자재의 해외조달, 발전설비의 고효율·고가동 등, 각사의 창의적인 노력과 성실한 노력을 간과할 수 없다.

이 가운데 신기술의 채용에서는 中國電力이 대형석탄화력인 三隅발전소의 배연탈황장치에 신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의하여 토틸로 약 30억엔의 코스트삭감을 달성하였다. 지금까지의 탈황장치는 50만kW용이 최대용량이었지만 下關발전소에서 처음으로 실용화한 새로운 液柱塔 方式의 도입으로 100만kW용의 콤팩트한 장치를 개발함으로써 코스트저감과 설치면적의 약 25%축소를 동시에 실현하였다.

東京電力도 설비투자억제를 위하여 여러 가지 신기술, 신공법 등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있다. LNG복합화력발전에서는 세계최고의 열효율이 되는 ACC(개량형 콤파인드사이클)발전방식을 도입하여 효율향상, 건설단가의 인하를 동

시에 실현하고 있다.

열효율 50%를 목표로 하는 富津화력의 증설분에서는 건설단가를 1kW당 약 13만엔 정도로 억제하는 계획으로 1988년에 운전개시한 종래의 富津화력(열효율 43%)에 비하여 3割强, 6만엔 정도 건설단가를 인하한다.

또 동사는 전력유통설비면에서도 다채로운 신공법을 채용하여 코스트의 억제를 도모하고 있다. 송전철탄의 전체에 철근콘크리트에 대신하여 주철블록을 사용하는 CIB공법을 개발하여 도입함으로써 철탄1기에서 종래보다 25%의 코스트다운을 실현하고 있다. 송전선의 이상개소를 판단하기 위한 보호릴레이의 신형장치를 개발, 실용화함으로써 약 150억엔의 투자가 압축될 전망이다.

東北電力은 복합화력인 東新瀉 4號系列에서 가스터빈新翼이라든지 豎型보일러의 채용, 계장제어장치의 합리화, 취수관, 연돌관경의 축소화 등 토틸코스트의 삭감을 추진함으로써 약 73억엔의 건설비의 저감을 도모한다. 原町화력에서도 岸壁의 포장범위의 축소, 방파제상부의 재질·사용변경 등으로 약 8억엔의 건설비가 억제될 수 있다고 한다.

경쟁견적 및 발주의 확대나 해외로부터의 기자재의 조달 등의 면에서도 각사 공히 적극적인 대응을 도모하고 있다.

中部電力은 제안형 경쟁견적제도의 채용확대를 비롯하여 자재조달에서 경쟁비율을 높일 방침으로 1996년도 이후,

전기계 소식 / 국외

건수비로 물품은 55% 이상, 공사는 50% 이상을 경쟁발주한다. 해외조달에서는 1998년도까지 400품목 이상을 해외로부터 구입할 계획이다. 화력용연료, 자금조달에서도 경쟁견적, 경쟁입찰을 실시한다.

關西電力은 1994년말에 뉴욕에 개설한 「구매액세스센터」와 인터넷을 활용하는 외에 플로리다電力 등 해외전력회사의 협력을 얻어 자재조달정보의 제공·수집을 국제적으로 전개하여 円高메리트를 살린 해외조달의 확대에 노력할 생각이다. 1995년도의 해외조달액은 159억엔으로 되어 있으나 1996년도에는 190억엔까지 높이고 2000년도에는 300억엔 정도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九州電力은 전기사업법개정에 따른 화력설비의 정기검사의 연기라든가 순시·점검 주기의 재검토, 작업방법의 합리화 등으로 1996년도는 보수코스트의 7% 정도인 약 140억엔의 감축을 실시한다.

中部電力도 석탄화력의 정기검사일수를 14일 단축하는 것으로 연간 4억엔, 화력 정기검사의 인터벌 연장으로 1996년도 약 12억엔의 코스트다운을 전망하고 있다.

이어서 금후에도 각사의 코스트다운전략은 착실하게 추진될 것이며, 그 결과로서 1997년도의 10개사 합계 설비투자액도 1996년도 정도의 4조 8203억엔으로 억제된다. 그러나 10개사의 有

利子負債殘高는 작년 9월말로 전년동기 대비 3.8% 증가한 28조 9503억엔에 달하고 있으며 1996년도의 투자액의 약 4분의 1을 외부자금으로 충당한다면 1996년도말의 부채잔고가 30조엔을 돌파하는 것은 확실하다. 이와 같은 財務體質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의미에서도 경영효율화에 의한 코스트다운은 이제 절실한 과제라 할 수 있다.

**中國, 三峽댐 터빈 발전기 입찰
700MW급 12대,
2분기중 실시**

중국 당국의 세계 최대규모의 댐공사로 알려진 三峽댐 터빈발전기에 대한 공급입찰을 금년 2/4분기중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국관영 新華통신은 삼협댐에 설치될 총 7백MW급 터빈발전기 26대에 대한 국제입찰을 올 상반기중에 실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신화통신은 나머지 14대 터빈 발전기에 대한 입찰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三峽댐 터빈발전기 국제입찰발표는 중국 당국이 그동안 자금조달과 컨설팅 등의 기초단계에 머무르던 三峽댐 공사를 본격화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은 당초 이 댐의 터빈발전기 국제

입찰을 1/4분기에 실시키로 했다가 외자도입지연을 이유로 2/4분기로 미뤘다.

현재 한국의 한국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 한리중공업 등이 단독 또는 해외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 三峽댐 터빈발전기 국제입찰에 참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일본, 러시아, 독일 미국 등의 10여개 社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오는 2003년까지 三峽댐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올 1/4분기중에 핵심발전설비인 26대의 터빈발전기 공급업체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미국 수출입은행의 지급보증 보류조치 등으로 난관에 봉착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국제금융전문가들은 '미국이 예전에는 三峽댐건설에 따른 환경과 괴를 내세워 차관제공을 꺼렸으나 현재는 대만-중국간 군사적 긴장을 이유로 금융지원을 미루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三峽댐건설비용협상을 어떻게 마무리할지가 국제적 관심사라고 밝혔다.

三峽댐 공사는 지난 '94년 12월 착공해 오는 2003년에 준공예정인 세계 최대 규모의 공사이다. 陽子江을 막아 전기를 일으키고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1900년초 孫文때부터 논의돼왔던 사업이다.

댐의 길이는 1,983m, 높이는 185m (중간에 483m의 배수댐 포함)이다. 68만kW의 터빈 발전기 26대(배수댐 좌측 14대 우측 12대)가 설치된다.

전기계 소식 / 국외

이 공사가 완공되면 댐의 총 저수용량은 393억m³(만수위 175m 홍수위 145m)에 달하고 연평균 발전량이 840억 kWh에 이른다.

이 규모는 현재 세계 최대규모인 南美의 이타이푸 수력발전소를 능가하는 수준이다.

三峡댐엔 3천t급의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갑문이 설치된다. 홍수방지 효과가 222억m³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당국은 이 댐이 준공될 경우 양자강 홍수빈도가 10년 단위에서 1백년 단위로 바뀌고 1500백만명 이상의 주민이 홍수위협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상 총 공사비는 177억달러이다.

季節別·時間帶別 料金體系로 移行 日, 電力會社の 잉여전력 구입체계 확정

지난 4월 1일부터 실시되는 전력회사의 잉여전력 구입체계가 확정되었다. 공장 등의 자가발전, 연료전지, 코제너레이션 등으로부터의 매입과 폐기물발전으로부터의 매입은 하계피크수요 평가도 고려된 季節別·時間帶別 料金體系로 이행된다. 가격면에서는 코제너레이션과 연료전지를 포함한 일반잉여가격은 연료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인하되지만, 환경특성을 평가한 요금으로 설정될 것

로 주목을 받고 있던 폐기물 발전의 전력매입단가는 하계피크수요분으로서 13엔대의 회사도 있어, 실질적으로 현행수준을 크게 상회하였다. 또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의 逆潮流分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전기요금 판매단가로 매입을 실시, 연료비조정제도도 적용해갈 방침이다. 잉여전력구입단가는 금후, 1년마다 재검토, 시행하도록 된다.

이번에 재검토되는 것은 자가발전 등의 잉여전력을 전력회사의 설비에 潮流시켜 전력을 구입하는 경우의 전력회사 구입단가이다. 각사에 따라 메뉴구성과 구입단가는 다르나 풍력이나 태양광발전 등 신에너지로부터의 잉여분, 코제너레이션과 연료전지 등으로부터의 잉여분, 그리고 폐기물발전으로부터의 잉여분 등 발전종별로 구분하여 단가가 설정되어 있어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신요금제도와 전기사업법개정 등에 따라 전력회사마다 재검토를 하여 왔다.

이 가운데 자치단체 등에서 도입이 활발한 폐기물 발전의 전력구입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로이 하계피크평가를 고려한 夏季晝間區分 單價로서 北海道電力 10엔 40센, 東京電力 12엔 80센, 中部電力 11엔 11센, 北陸電力 10엔 30센, 關西電力 13엔 42센(첨두時), 中國電力 9엔 20센, 四國電力 8엔, 九州電力 12엔 80센 등 각사에 따라 들쭉날쭉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이다. 關西電力에서는 하계주간을

다시 피크의 첨두時間인 10시~17시 사이의 시간대와 그 밖의 시간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폐기물발전은 입찰대상자로서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입찰에 참가함이 바람직하다고 하며 잉여 전력구입메뉴의 단가로 전력을 구입하는 것은 그 이외의 것이 대상이 되고 있다. 또 어느 경우에도 자원의 유효이용 등 환경특성을 고려한 우대가격을 설정할 것을 전기사업심의회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어 이번의 재검토 가격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공장 등의 자가발전이나 연료전지, 코제너레이션 등으로부터의 잉여전력구입은 계절별구분을 도입하였으나 산정기준이 되는 화력발전소의 연료비가 저하하고 있어 각사 공히 값을 낮추었다. 東京電力에서는 안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하계 평일 주간시간대를 11엔, 기타 계절 평일주간시간대를 10엔 40센, 기타 기간대를 2엔 80센으로 설정하였다.

그밖에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등의 자연에너지로부터의 구입은 종래제도와 마찬가지로 3단계 요금의 정산형식으로 구입을 실시토록 하였다. 단가도 1월 1일부터의 신요금제도에 맞추어 개정하고 4분기마다 연료비조정도 적용한다. 잉여 전력구입단가는 매년 재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적용되는 가격은 1997년 3월 31일까지 적용된다.